



소규모 체육실을 1층 목공실로 옮기는 사업비이고 목공실은 추후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유희교실도 없어 폐쇄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 되었음.

- 위원장(박\*훈), 위원(유\*인): 한들고등학교에 상징처럼 된 목공실을 폐쇄하는 것이 매우 아쉬우니 추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수요를 생각해서 해당 물품들을 몇 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어떤지
- 위원(임\*숙, 조\*정): 계속 쓰던 물품들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놓다 보면 재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제대로 활용이 될지 모르겠음.
- 교장(추\*훈): 학부모님들의 목공에 대한 생각을 잘 알고 있으므로 추후 이런 내용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음.

나. 결정사항

- 원안 가결(찬성 7표, 반대 0표)

첨부 내역

참석자 출석등록부 1부.

기록자(간사 김\*수)